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고’ 접속의 영어 번역유형 연구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정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고’ 접속의 영어 번역유형 연구

지도교수 김은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정화

이정화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주 심 영 어 학 박 사 전 춘 배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김 은 일 (인)

# 목 차

영 문 초 록 .....	iv
<b>제 1장 서 론 .....</b>	<b>1</b>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	4
<b>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b>	<b>5</b>
2.1 ‘고’ 접속의 분류 .....	5
2.1.1 보조접속 .....	5
2.1.2 대등접속 .....	9
2.1.3 순차접속 .....	10
2.1.4 동태접속 .....	10
2.2 언어자료 및 분석방법.....	12
<b>제 3장 ‘고’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 .....</b>	<b>15</b>
3.1 ‘고’ 접속의 유형별 빈도 .....	15
3.2 ‘고’ 접속의 유형별 번역 구문 형태.....	16
3.2.1 보조접속 .....	16
3.2.2 대등접속 .....	27
3.2.3 순차접속 .....	28
3.2.4 동태접속 .....	34

제 4장 결 론 .....44

참고문헌 .....46

분석자료 목록 .....47



## 표 목차

<표 1> 영어번역 구문의 접속 유형별 빈도 .....	15
<표 2> 보조접속의 의미 범주별 빈도 .....	16
<표 3> ‘-고 싶다’ 영어 번역 구문별 빈도 .....	20
<표 4> 순차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별 빈도 .....	29
<표 5> 동태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별 빈도 .....	35



# A study on 'ko' Construction and Patterns of its English Translations

Jung-Hwa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further conjunctive patterns and expressions when Korean 'ko' is translated into English. Conjunction is the process of combining two constituents of the same type to produce another, larger constituent of the same type. Conjunctive words or inflectional endings are used to show various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ent sentences, but this study considered only the [V1+ko+V2] construction. For this purpose, the parallel case consisting of the original Korean source texts and their English translations is analyzed. The sentences involving the Korean [V1+ko+V2] construction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texts and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paralleled English sentences were located in the English counterparts and were analyzed based on each Korean 'ko' type.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s that Korean [V1+ko+V2] construction is translated based on four kinds of 'ko' conjunctive types. The first type is that Korean 'ko' is shown in conjunction with bounding verbs. Four kinds of bounding verbs(-ko itta/-ko siphta/-ko nata/-ko malta) were subtracted from the Korean text and analyzed. The second type is when Korean [V1+ko+V2] construction is shown in conjunction

with coordinating conjunction. V1 and V2 happen independently and can be exchanged without a difference of meaning. The third type is when Korean [V1+ko+V2] construction is shown in conjunction with consecutive conjunction. The two events listed spatially by 'ko' are ordered chronologically. The last type is when Korean [V1+ko+V2] construction is shown in conjunction with simultaneous conjunction. V1 and V2 happen simultaneously, connecting two events in terms of the same time.

Based on four kinds of 'ko' conjunctive types, Korean [V1+ko+V2] construction was translated with various patterns and expressions. The understanding of these patterns will help Korean learners avoid sticking to certain typical patterns and will encourage them to be expressive naturally, with various patterns in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of the Korean 'ko' conjunction.



# 제 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오고 간다’, ‘밥을 먹고 왔다’, ‘기차를 타고 간다’, ‘비 맞고 서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등과 같이 접속사 ‘고’가 사용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때의 우리말 [V1+고+V2]구문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영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대다수의 영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영어 번역을 할 때 한영사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사전이 유일한 번역도구가 된다. 학습자들이 우리말 ‘고’라는 단어에 익숙하더라도 영어의 쓰임을 알기 위해 한영사전을 활용할 것이다. 아래의 한영사전<sup>1)</sup> 속에 나타난 ‘고’에 대응되는 영어 쓰임을 살펴보자.

- (1) ① (a) -고 있다 ex) 기다리고 있다 be waiting  
(b) -고 나다 ex) 밥을 먹고 나다 have just finished dinner  
(c) -고 싶다 ex) 집에 가고 싶다 I want to go home  
②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It rains **and** the wind blows too.  
③ 문을 열고 손님을 맞다 open the door **and** welcome a visitor

위의 ①번은 ‘고’와 보조동사의 접속이고, (a),(b),(c)에서 별도의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②~③번은 ‘고’주동사(구)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영

---

1) 엡센스 한영사전(2009)

어 등위 접속사 'and'이 동작의 연속 또는 대등한 연결, 순차적 동작이라는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한국어 [V1+고+V2]구문이 주동사 접속에서 영어로 번역될 때 등위접속사 'and'의 쓰임 이외에 다른 영어 구문으로도 번역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아래의 예문(2)~(6)은 [V1+고+V2]구문에서 동사 한 개가 영어로 나타나지 않거나, 종속접속사, 전치사, 부사,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각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a. 저는 마루 끝에 영덩이를 [붙이고] [앉아] 누군가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경숙 1993: 15>  
b. I [sat] on the edge of the verandah hoping someone would come through the open gate. [V+Ø] <Tennant (역) 1998: 3>
- (3) a.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슈토베의 한글학교선생님... <윤후명 1995: 35>  
b. The person [going] [in] the car was a teacher.... [V+전치사] <Shaffer (역) 1997: 11>
- (4) a.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석대 쪽이 더 크게 느껴지기 까지 했다. <이문열 1987: 333>  
b. In fact, if you [thought] of them [separately], you might even have felt that Sokdae was bigger. [V+부사]

---

2) 등위 접속사 'and' 이 여러 문맥에서 쓰이고 있음은 류영두(1997), 박찬규(2004), Celce-Murcia and Freeman(1999)을 참고하길 바란다.

<O'Rourke (역) 1995: 92>

(5) a. 무얼 하는지 젊은 녀석 들을 달고 와 중앙통을 돈으로 [휩쓸고]  
[간] 모양이야. <이문열 1987: 347>

b. Whatever it is he's doing, seemingly he came down with two young fellows and literally [swept] the main street with money [before] he left. [V+중속접속사] <O'Rourke (역) 1995: 116>

(6) a. 아니 성난 얼굴이었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미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라도 기억에서처럼 그렇게 조용히 [듣고] [앉아] 있지만은 앉았을 것이다. <이문열 1987: 310>

b. If he had shown anger on his face or given the slightest indication of disliking me, I don't think I'd have [sat] on there [listening] as quietly as I remember. [V1-ing+V2] <O'Rourke (역) 1995: 53>

위의 (2)~(6)은 한국어 '고'가 다양하게 영역된 경우로서 (2)는 동사 한 개가 영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3)은 동사가 전치사와 결합한 경우로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4)는 동사가 부사와 결합한 경우로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5)는 동사가 시간 접속사와 결합하여 시간의 전후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은 동사가 분사와 결합한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고'가 문맥과 의미 분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접속의 형태로 표현되는 문장이 영어에서도 반드시 접속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어와 영어 양 언어 간의 접속에서 다르게 부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sup> 이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을 말하거나 영작을 할 때 접속구문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어 ‘고’ 동사 접속의 한영 번역 유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고’의 의미에 따른 접속 유형의 분류와 그 분류에 따라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언어 자료와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한영 번역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V1+고+V2]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접속 유형별로 나타나는 번역 형태를 기술한다. 제 4장은 결론으로서 요약과 정리를 한다.

한편,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범위에서 한국어 [V1+고+V2]구문과 같이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된 구문을 연구대상으로 번역구문을 기술하였다.

둘째, 한국어 [V1+고+V2]구문이 접속 유형별로 영어로 번역될 때 나타난 모든 번역 구문들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3) 특정한 의미영역이 한 언어에서는 하나의 문법장치로,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의미로 간주되어 여러 개의 다른 문법장치로 부호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김은일(2002)을 참고하길 바란다.

##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여기서는 한국어 ‘고’ 접속 구문의 의미유형별 분류 및 각 접속 유형의 의미를 살펴보고, 언어자료와 분석방법을 기술한다.

### 2.1 ‘고’ 접속의 분류<sup>4)</sup>

한국어 자료에서 추출된 [V1+고+V2] 구문의 문장들을 서정수(1994)의 ‘-고’ 접속 분류에 따라 보조접속, 대등접속, 순차접속, 그리고 동태접속의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sup>5)</sup> 이제 각 접속 유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 2.1.1 보조 접속

서정수(1994)에 의하면 우리말의 동사는 그 서술 기능 면에서 주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동사는 흔히 단독으로 서술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보조 동사는 반드시 주동사와 더불어 쓰이면서 그 서술 기능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 다음에서 보조동사의 특징과 종류를 살

4) ‘고’ 접속의 유형별 분류가 각 접속의 성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는 단순한 ‘나열’의 기능만을 가진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남기심(1978)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5) 서정수(1994)는 ‘고’ 접속을 보조접속, 대등접속, 순차접속, 동태접속, 화용접속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화용접속(원인/결과)은 [V1+고+V2] 구문의 예문이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로 범위를 한정한다.

펴보자.

먼저 ‘고’ 보조동사는 아래와 같이 2가지 특징을 가진다.

1) 보조동사는 주 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보조동사는 선행동사 V1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V1 없이는 독자적으로 서술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손세모돌 1992).

(7)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있다].

(7)에서 주동사와 보조 동사 사이에는 ‘고’ 와 같은 문법 형태가 개입되어 서로 결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보조동사는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

(8) a.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b.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

c.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둔다.

(8b)와 (8c)처럼 ‘-있다’ 라는 보조 동사가 생략되거나 딴 형태로 바뀌면 비문이 되고 만다. 이는 보조 동사가 그 자체로서 무시할 수 없는 어휘적 의미 기능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고’ 보조동사는 문장에서 주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자료에서는 네 가지 보조동사 ‘-고 있다’, ‘-고 싶다’, ‘-고 나다’, ‘-고 말다’ 가 추출되

었다.6) 다음은 순서대로 각 보조동사의 의미를 살펴보자.

#### 2.1.1.1 ‘-고 있다’

보조동사 ‘-고 있다’ 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7)

- (9) a.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있다].  
b. 시집가서는 잘 살[고 있다].

(9)에서 각 문장의 V1 ‘먹다’, ‘살다’ 가 ‘-고 있다’ 와 결합되어 동작주의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 있다’ 의미자질은 [+동작성][+지속성]을 가진다(김영태 2000). 다음은 ‘-고 싶다’ 의 의미를 살펴보자.

#### 2.1.1.2 ‘-고 싶다’

보조동사 ‘-고 싶다’ 는 앞의 주동사가 표시하는 행동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다.

- (10) a.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b. 나는 쌀밥에 고기가 먹[고 싶어].

6) 한국어 자료에서 추출된 이 네 가지 보조동사는 이상택(1984)이 설정한 ‘-고’ 무리와 동일하고 더 자세한 특징은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

7) 보조동사 ‘-고 있다’가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김영태(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 오늘은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있다.

(10a)에서는 만나는 행위, (10b)에서는 먹는 행위를 바라고 있다.

### 2.1.1.3 ‘-고 나다’

보조동사 ‘-고 나다’ 는 사태나 행위의 [종결]을 나타낸다.

(11) a. 순돌이가 가[고 나니] 순지가 오더라.

b. 내가 먹고 [난 뒤에] 내가 먹는다.

(11)에서처럼 보조동사 ‘-고 나다’ 는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접속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김영태 1999). 주체동작(행위)이나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고 나다’ 가 결합되어 동작이나 사태가 [지속되어 오던 것이 종결]된다. 다음은 ‘-고 말다’ 의 의미를 살펴보자.

### 2.1.1.4 ‘-고 말다’

보조동사 ‘-고 말다’ 도 또한 [종결]을 나타낸다. 행위자의 동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속되어 오던 것이 ‘-고 말다’ 에 의해 [순간적으로 종결]됨을 뜻한다.

(12) 을 삼동에 마늘이 다 얼어 죽[고 말았다].

(12)에서 ‘죽고 말았다’ 는 마늘이 삼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죽기 전에는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나타낸다. 본동사는 주로 [+지속성] 자질을 가지고 ‘-고 말다’ 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순간성] 자질을 가

진다(김영태 1999).

위와 같이 ‘고’ 보조동사는 문장 안에서 주 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고 있다’ 는 [진행], ‘-고 싶다’ 는 [희망], ‘-고 나다’ 와 ‘-고 말다’ 는 둘 다 [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동사로 요약된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인 대등 접속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 2.1.2 대등 접속

한국어 [V1+고+V2]구문이 대등접속일 때 V1과 V2는 독립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두 동사의 순서를 맞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남기삼 1978). ‘고’ 대등접속은 동사가 상대성을 보이는 경우와 반복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먼저 상대성 동사가 나타난 대등접속의 예문을 보자.

- (13) a. 하늘은 [맑고] [푸르다].  
b. 하늘은 [푸르고] [맑다].

‘고’ 는 상대성 동사가 쓰인 두 구나 절을 대칭적인 대등관계로 잇는다. V1, V2의 두 동사(구)들이 독립적으로 나열되고 두 동사의 순서를 맞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은 동사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대등 접속의 예이다.

- (14) a. 사람들이 거리를 [가고] [온다].  
b.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간다].

한국어 [V1+고+V2]구문의 V1, V2가 동작성으로 반복상을 보일 때는 특정한 개별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칭적 대등 접속을 이룬다.

위의 2.1.2에서는 한국어 [V1+고+V2]구문이 대등접속일 때 V1과 V2는 독립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두 동사의 순서를 맞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형인 순차 접속을 살펴보자.

### 2.1.3 순차 접속

순차접속은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V1, V2가 비상태성을 보일 때 시간적으로 변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즉, 시간적 차이가 나타나므로 상호교체가 불가능해진다.

(15) a. 나는 병을 [따고] [마셨다].

b. \*나는 [마시고] [병을 땀다].

(15)와 같이 ‘고’의 V1과 V2는 시간 차이가 드러나므로 V1의 [병 따다] 그리고 나서 V2의 [마시다]로 ‘병을 땀 후에 마셨다’라는 의미가 된다. (15b)에서처럼 그 순서를 맞바꾸면 의미상 비문이 된다. 다음은 마지막 유형인 동태 접속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 2.1.4 동태 접속

동태 접속은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V1, V2가 결합하여 동시동

작, 행위의 방법을 나타낸다. 이럴 때 ‘고’ 접속문이 관용적으로 화용론적 관계로 풀이되기 때문에 대등접속이나 순차 접속과 구별될 수 있다.<sup>8)</sup>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16) a. 나는 [차를 타고] [갔다].

b. 나는 [차로] [갔다].

(17) a. 그녀는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b. 그녀는 [모자를 쓴 채로(모양으로)] [들어왔다].

(16), (17)에서 각 V1의 동작이 먼저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V2의 동작과 겹치고 있다. (16)에서 V1의 [차를 타다]와 V2의 [가다]가 결합하여 ‘차를 탄 채로(탄 상태대로)’로 해석이 된다. (17)에서는 V1의 [모자를 쓰다]와 V2의 [들어가다]가 결합하여 ‘모자를 쓴 채로(쓴 상태대로)’로 해석이 된다. [모자를 쓰다]라는 완료 행위는 초점 밖으로 사라지고 모자를 쓴 상태 곧 V1이 완료된 상태가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을 때에 동시 동작, 행위의 방법의 의미가 드러난다.

(7)–(17)에서는 ‘고’ 접속 분류에 의한 네 가지 접속 유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V1+고+V2]구문의 문장들이 서정수(1994)의 ‘고’ 접속 분류에 따라 네 가지 보조접속, 대등접속, 순차접속, 동태접속으로 분류되었다. 보조접속은 한국어 텍스트에서 추출된 ‘-고 있다/-고 싶다/-고 나다/-고 말다’ 보조동사 4가지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대등 접속은 V1과 V2가 각각 나열된 것으로 V1, V2의 순서를 맞바꿔도 의미 차

8) 서정수(1994), 박한기(1998), 김진석(2005)에서는 V1, V2 두 동작을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로만 여기지 않고 문맥과 동작의 초점에 따라 상황적 의미 작용을 보여 동태 접속(동시동작)으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가 없다. 순차접속은 V1 뒤에 시간차를 두고 V2가 나와서 ‘V1 -한 뒤에/후에 V2’ 의 뜻이다. 동태접속은 V1과 V2가 동시동작 또는 행위의 방법을 나타내고 V1과 V2가 ‘~하면서/한 채로’ 를 의미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한국어 [V1+고+V2]구문의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이 추출된 언어자료와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 2.2 언어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병렬 자료로 한국어 텍스트와 이를 원문으로 한 영어 번역본이다. <자료 1>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1987)과 그 번역본인 *Our Twisted Hero*(Kevin O'Rourke 역 1995)이고, <자료 2>는 *풍금이 있던 자리*(신경숙 1993)와 그 번역본인 *Where the Harmonium Was*(Agnita M. Tennant 역 1998)이다. <자료 3>은 *마음의 감옥*(김원일 1990)과 그 번역본인 *Prisons of the Heart*(Julie Pickering 역 1997)이며, <자료 4>는 *하얀배*(윤후명 1995)와 그 번역본인 *White Ship*(David E. Shaffer 역 1997)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자료에서 [V1+고+V2]구문을 가진 문장을 추출한다. 추출된 한국어 문장들을 국어문법(서정수 1994)의 ‘고’ 접속 분류에 따라 네 가지 접속 유형(보조접속, 대등 접속, 순차 접속, 동태 접속)으로 분류한다. 각 접속 유형별로 한국어 [V1+고+V2]구문이 영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번역 구문을 기술한다.

아래에는 ‘고’ 접속구문이 한영텍스트에서 추출되는 예와 의역문이 제외되는 예가 제시되어있다. 먼저 한국어[V1+고+V2]구문이 한영자료에서 추출되는 예를 살펴보자.

- (18) a. 그동안 간수 최는 밖으로 나가 [세수를 하고] [왔다]. <김원일 1990: 376>
- b. Ch'oe [returned] [after washing] his face and hands outside. <Pickering (역) 1997: 8>

(18a)에서 한국어 [V1+고+V2]구문의 [세수를 하고] [왔다]에 해당하는 문장을 영어 자료와 대응해서 찾아 V1의 [세수하다]에 해당하는 [after washing]을 찾고, V2의 [왔다]에 해당하는 [returned] 영어 표현을 찾으려 했다.

다음은 한국어 [V1+고+V2]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의 의역문은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먼저 한국어 [V1+고+V2]구문이 영어번역에서 V1, V2가 모두 생략된 경우를 보자.

- (19) a. 병동 현관을 지키는 전투경찰대원과 병실 앞을 [지키고] [섰는] 전투경찰대원에게 나는 현구 형임을 밝혔다. <김원일 1990: 414>
- b. I identified myself to the riot police at the front door and at Hyon-gu's room and hurried inside. <Pickering (역) 1997: 35>

(19)에서 V1의 [지키다]와 V2의 [서다]가 영어에서는 다른 구문에 의미가 흡수되어 외형상 모두 생략되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한국어 [V1+고+V2]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V1과 V2가 전혀 다른 형태로 번역되어 제외된 예이다.

(20) a. 말이 난 김이니 [짚고] [넘어가자는] 투였다. <이문열 1987: 303>

b. We might as well [clear the air]. <O'Rourke (역) 1995: 41>

(20)에서는 V1의 [짚다]와 V2의 [넘어가다]가 영어의 [clear the air]로 나타나 전혀 다른 형태로 번역되었다.

위의 2.2에서는 언어자료와 분석 방법, 더불어 한국어 [V1+고+V2] 구문이 영어 자료에서 추출되는 예와 ‘고’ 접속의 연구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의역문을 모두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고’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에 관한 분석 결과로 ‘고’ 접속의 유형별 번역 구문의 빈도와 영어번역 구문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제 3장 ‘고’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

여기서는 ‘고’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에 관한 분석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 접속의 유형별 빈도를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번역 구문의 형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3.1 ‘고’ 접속의 유형별 빈도

영어 번역 자료에서 추출된 총 549개의 문장에서 의역문 219개를 제외한 330개의 ‘고’ 접속 구문을 네 가지 접속 유형(보조접속, 대등접속, 순차접속, 동태접속)으로 분류하였고, 각 접속 유형별로 그 빈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영어번역 구문의 접속 유형별 빈도

보조접속	대등접속	순차접속	동태접속	합계
215 (65.1%)	12 (3.6%)	30 (9.1%)	73 (22.1%)	330 (100%)

<표 1>에서 보조접속이 65.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태접속이 22.1%, 순차접속이 9.1%, 대등접속이 3.6%순으로 나타났다. 이 표는 ‘고’ 접속 구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등접속과

순차 접속이 전체의 약 13%로 아주 낮게 나타난 반면 한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조접속과 동태접속이 전체의 약 87%로 나타나 한국어의 ‘고’ 접속은 영어의 등위접속사 'and'의 기능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유형에서 [V1+고+V2]구문이 영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 3.2 ‘고’ 접속의 유형별 번역 구문 형태

여기서는 3.1에서 제시된 <표 1>의 유형 순서대로 영어 번역 구문을 알아본다. 먼저 네 가지 접속 유형 중에서 65.1%로 가장 많이 나타난 보조접속을 살펴보자.

#### 3.2.1 보조 접속

이 유형은 ‘고’가 보조동사와 함께 쓰인 경우로서 영어 번역문이 모두 215개가 추출되었다.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네 가지의 의미범주(‘-고 있다(진행)’ / ‘-고 싶다(희망)’ / ‘-고 나다(종결)’ / ‘-고 말다(종결)’의 보조동사를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보조접속의 의미 범주별 빈도

보조 접속 의미 범주	개수(%)
‘-고 있다’ (진행)	170(79.1%)

‘-고 싶다’ (희망)	26(12.1%)
‘-고 나다’ (종결)	11(5.1%)
‘-고 말다’ (종결)	8(3.7%)
계	215(100%)

<표 2>에서 ‘-고 있다’가 79.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고 싶다’ 12.1%, ‘-고 나다’ 5.1%, ‘-고 말다’ 3.7%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조접속의 전형적인 용법이 ‘-고 있다’의 진행의미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표 2>에 나타난 보조동사의 순서대로 영어 번역 구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 3.2.1.1 ‘-고 있다’

보조동사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다. 총 170개의 문장이 추출되었고 영어 번역 구문의 종류는 두 가지가 나왔다.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88개(51.8%),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가 82개(48.2%)가 나와 서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21)–(26)은 동사 ‘wait’, ‘watch’, ‘run’이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와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의 예문들이다. 먼저 동사 ‘wait’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21) a. 너희들은 나 같은 선생님만 [기다리] [고 있게] 될 것이다. <이문 열 1987: 339>

b. You [I'll just wait] for a teacher like me. <O'Rourke (역) 1995: 101>

- (22) a. ...내가 복잡한 머리로 중회를 [기다리] [고 있을] 때 석대가 불쑥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문열 1987: 326>
- b. I [was] [waiting] for final assembly, buried in my own perplexity, when Sokdae suddenly appeared in front of my desk. <O'Rourke (역) 1995: 81>

(21)에서는 V1의 [기다리다]는 [wait]로 V2의 [-고 있다]는 V1에 융합되어 영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22)에서는 V1의 [기다리다]와 V2의 [-고 있다]가 현재분사 [was waiting]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동사 'watch'가 쓰인 번역 구문의 예이다.

- (23) a.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 [고 있을] 뿐 충고 한 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이문열 1987: 344>
- b. ...he never gave a word of advice; he just [watched] quietly. <O'Rourke (역) 1995: 89>
- (24) a. 그게 다시 나를 까닭 모르게 움츠러들게 했지만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백여 개의 눈초리가 나를 [지켜보] [고 있다]는 까닭이 었다. <이문열 1987: 285 >
- b. This made me shrink again, but I couldn't give in now. One hundred eyes [were] [watching] me. <O'Rourke (역) 1995: 12 >

(23)에는 V1의 [지켜보다]는 [watched]로, V2의 [-고 있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24)에서는 V1의 [지켜보다]와 V2의 [-고 있다]가 현재 분사 [was watching]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동사 'run'이 쓰인 번역 구문의 예이다.

(25) a. 누이는 초급대학 시절 ....김 서방과 연애를 하더니, 졸업 뒤 결혼했다. 지금은 세 아이를 두었고, 시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약국을 [열] [고 있었다]. <김원일 1990: 393>

b. Suk-yong met her future husband, Mr. Kim, a country boy attending pharmacy college in Taegu,...the two married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They had three children and [ran] a pharmacy in a suburban apartment complex. <Pickering (역) 1997: 21>

(26) a. 대구 노원동 제3공단에서 현구가 노동야학을 [열] [고 있을] 무렵, 동수엄마는 시골 종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우와 사귀게 되었음을 알게 나는 알고 있었다. <김원일 1990: 387>

b. My sister-in-law met Hyon-gu when he [was] [running] a night school for laborers at Industrial Park No. 5 in Taegu's Nowon-dong. <Pickering (역) 1997: 16>

(25)에서는 V1의 [열다]는 [ran]으로, V2의 [-고 있었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26)에서는 V1의 [열다]와 V2의 [-고 있다]가 현재분사 [was running]으로 나타났다.

위의 3.2.1.1에서는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고 있다’가 영어로 번역될 때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로 두

가지 구문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희망]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고 싶다’의 번역 구문에 대해 살펴보자.

### 3.2.1.2 ‘-고 싶다’

‘-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접속이다. 한영 자료에서 총 26개의 문장이 추출되었고, 영어 번역 구문으로는 세 가지로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나왔다. 아래의 표에서 구문별 빈도를 살펴보자.

〈표 3〉 ‘-고 싶다’ 영어 번역 구문별 빈도

영어 번역 구문	개수(%)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3(11.5%)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	3(11.5%)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20(76.9%)
계	26(100%)

위의 표를 보면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가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3개(11.5%),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3개(11.5%),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20개(76.9%)가 나타나서 동사로 번역된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의 표에 나타난 순서대로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A.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고 싶다’는 V1이 영어로 나타나고, V2의 ‘-고 싶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7) a. ...그걸 가지고 학교까지 갔다가는 [먹고] [싶은] 유혹을 물리  
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신경숙 1993:  
26>
- b. ...because he knew that it would be too hard to resist the  
temptation [to eat] it. <Tennant (역) 1998: 11>

(27)에서 V1의 [먹다]는 [to eat]으로, V2의 [-고 싶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고 싶다’가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B.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고 싶다’가 V1은 동사로, V2가 명사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8) a. 당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은] 수줍음 ... <신경숙 1993: 39>
- b. ...my shyness with the [desire] [to feel] your face, the  
longing for you when you are away. <Tennant (역) 1998:  
20>

(28)에서 V1의 [만져보다]는 [to feel]로, V2의 [-고 싶다]는 영어 명

사인 [desire]로 번역되어 V2가 [희망]의 보조접속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고 싶다’가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C.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고 싶다’가 V1은 동사로, V2는 [want to], [would like to], [feel like-ing]의 동사로 번역된 경우로 3가지가 나타났다. 먼저 보조접속 ‘-고 싶다’가 [want to]로 쓰인 예문을 살펴보자.

- (29) a. 나는 반에서의 모든 문제를 [알고] [싶을] 뿐이다. <이문열 1987: 307>  
b. I [want to] [know] all the problems in the class. <O'Rourke (역) 1995: 48>

(29)에서 V1의 [알다]는 [know]로, V2의 [-고 싶다]는 [want to]로 번역되어 V2가 [희망]의 보조접속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동사 [would like to]의 경우를 보자.

- (30) a.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그 무효의 2표의 내역이다. <이문열 1987: 341>  
b. I [would like to] [clear up] what was behind the two invalid votes. <O'Rourke (역) 1995: 85>

(30)에서 V1의 [밝혀두다]는 [clear up]으로, V2의 [-고 싶다]는

[would like to]로 번역되어 V2가 [희망]의 보조접속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동사 [feel like-ing]로 번역된 경우이다.

(31) a. 그 눈에 제 눈을 [헹궈내고] [싶을] 정도로요. <신경숙 1993: 28>

b. I [feel like] [rinsing] out my eyes with them. <Tennant (역) 1998: 12>

(31)에서 V1의 [헹궈내다]는 [rinse]으로, V2의 [-고 싶다]는 [feel like -ing]로 번역되어 V2의 동사가 [희망]의 보조접속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3.2.1.2에서는 ‘-고’ 보조접속에서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가 영어로 번역될 때 세 가지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보조접속 ‘-고 나다’의 번역 구문에 대해 살펴보자.

### 3.2.1.3 ‘-고 나다’

‘-고 나다’는 [종결]을 뜻하는 보조동사 접속으로, 총 11개 문장이 추출되었다. V1은 단순 동사로 나타났고, V2의 [-고 나다]는 영어로 번역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고 나다’ 보조동사는 특성상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주로 ‘-고 난 뒤/나면/나니’ 등의 의미로 종속접속사와 함께 나타난다. 한영 번역 자료에서는 ‘-고 나다’가 접속사 'after'와 'once'로 함께 쓰인 문장이 추출되었다. 먼저 [V+접속사 'after']구문의 예문을 보자.

- (32) a. 박 선생이 [구속되고] [난] 뒤, 그때 그 장면을 두고 묘한 말을 하  
 대. <김원일 1990: 410>
- b. ... he said something really strange after Mr. Pak [was  
 arrested]. <Pickering (역) 1997: 32>

보조접속 [-고 나다]가 ‘~한 뒤에/후에’ 와 연결되어 [V+접속사  
 'after']구문으로 표현되었다. 박 선생이 구속되었다는 종결된 사건이 'after'  
 종속절로 쓰여 주절보다 앞선 시간대에서 일어났음을 즉, [종결] 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다음은 [V+접속사 'once']구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 (33) a. 다만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과 작별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나면] 이분들을 다시  
 뵈어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신경숙 1993: 13>
- b. Once I [had boarded] a plane with you, I doubted whether I  
 would see them again in their life time. <Tennant (역)  
 1998: 2>

보조접속 [-고 나다]가 ‘~하면’ 과 연결되어 [V+접속사 'once']구문으  
 로 표현되었다. 비행기를 탄 사건이 'once' 종속절로 쓰여 주절보다 앞선 시  
 간대에서 일어났음을 즉, [종결]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3.2.1.3에서는 ‘-고’ 보조접속의 [종결]을 뜻하는 보조동사 ‘-고  
 나다’ 가 V1은 영어 동사로 쓰였고, V2 ‘-고 나다’ 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  
 는 번역구문이 나왔다. ‘-고 나다’ 는 주로 ‘-고 난 뒤/나면/나니’ 의미의  
 종속접속사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은 [종결]을 뜻하는  
 다른 보조동사 ‘-고 말다’ 의 번역 예문을 살펴보자.

#### 3.2.1.4 ‘-고 말다’

‘-고 말다’ 도 [종결]을 뜻하는 보조동사 접속이다. 총 8개의 번역구문에서 동사 [end up-ing]구문이 2개(25.0%), ‘-고 말다’ 가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6개(75.0%)로 나타났다. 먼저 동사 [end up-ing]구문의 예문을 보자.

- (34) a. 애초에 그냥 '떠났다'고 하려던 것이 그만 길어지[고 말았다].  
<윤후명 1995: 30>
- b. ...as just "I left" [ended up] [being] stretched out to this extent. <Shaffer (역) 1997: 7>
- (35) a. 아니, 공원의 장미꽃 정도가 아니었다. 전직 경찰 간부가 남의 집 감자 몇 알을 훔치다가 들켜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윤후명 1995: 60>
- b. And it was not just roses in the park. There had been a former police official who had stolen a few potatoes from someone's house and [ended up] [committing] suicide when discovered. <Shaffer (역) 1997: 28>

(34b), (35b)에서 V2의 ‘-고 말다’ 는 [end up-ing]구문으로 쓰여서 [종결]을 나타낸다. 'end up-ing'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상태에 이르게 됨을 뜻하는데, 특히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Summers 1995). 다음은 V2 ‘-고 말다’ 가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의 예문을 살펴보자.

- (36) a. ...몰락한 석대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이문열 1987: 329>  
      b. Sokdae, ruined, [had disappeared] from our world.  
          <O'Rourke (역) 1995: 85>

- (37) a. 더 어떻게 말해볼 기력을 잃[고 말았다]. <이문열 1987: 315>  
      b. I [lost] all stomach to say any more. <O'Rourke (역) 1995:  
          61>

(36), (37)에서와 같이 V1은 단순 동사 [had disappeared], [lost]로 표현되었고, V2의 보조동사 ‘-고 말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3.2.1에서는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네 가지 보조동사 ‘-고 있다/-고 싶다/-고 나다/-고 말다’의 영어 번역 구문을 살펴보았다. [진행] 뜻의 ‘-고 있다’는 두 가지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와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의 번역 구문이 나타났다. [희망] 뜻의 ‘-고 싶다’는 세 가지로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의 번역 구문이 나타났다. [종결] 뜻의 보조동사는 두 가지이다. ‘-고 나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번역 구문만이 나타났고, ‘-고 말다’는 [end up-ing]와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구문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등 접속의 번역 구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2 대등 접속

대등접속은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상태 또는 동작 동사 V1, V2가 각각 나란히 나열되어 그 순서를 맞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 관계이다. 영어 번역문은 총 12개가 추출되었고, 영어로 번역된 형태는 등위접속사 [V1+'and/or'+V2]구문으로 표현되었다. 먼저 [V1+'and'+V2]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 (38) a.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대화만 [겉돌고] [무거워질] 우려가 있어서... <윤후명 1995: 43>  
b. ...due to my concern that the conversation [would be superficial] [and] [become weighty],... <Shaffer (역) 1997: 16>

(38)에서 V1의 [겉돌다]와 V2의 [무거워지다]가 등위 접속사 'and' 으로 연결되었다. V1과 V2의 순서를 바꾸어서 '대화만 무거워지고 겉돌 우려가 있어...' 로 표현되어도 의미의 차이가 없다. 등위접속사 'and'이 동사의 대등적 결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39) a. 아이들은 이내 자신을 회복해 [동의하고] [재청하고] [찬성하고] [투표했다]. <이문열 1987: 340>  
b. ... they [made motions], [seconded], [endorsed], [and] [voted]. <O'Rourke (역) 1995: 102>

(39)에서 V1의 [동의하다], V2의 [재청하다], V3의 [찬성하다], V4의

[투표하다] 동사들은 독립적으로 나열된 대등접속이다. 4개의 동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이들 동사들의 순서를 바꾸어 나열해도 의미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영어 번역 구문에서는 ',(comma)'와 등위 접속사 'and'을 사용하여 V1, V2, V3, and V4로 행위의 추가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V1+'or'+V2]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40) a. 칠천만 명이나 [처형되고] [유배되었다더군]. <김원일 1990: 378>

b. Seventy-million people [were killed] [or] [exiled] during Stalin's 22-year rule. <Pickering (역) 1997: 10>

(40)에서 V1의 [처형되다]와 V2의 [유배되다]가 등위접속사 'or'로 연결되어 있다. (40a)에서 칠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처형도 되었고 유배도 된 두 동작이 모두 이루어진 숫자가 아니라 ‘처형된 사건의 숫자’ 또는 ‘유배된 사건의 숫자’를 의미하므로 [선택]을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 'or'이 V1과 V2를 나란히 연결하고 있다.<sup>9)</sup>

위의 3.2.2에서는 대등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V1+고+V2]구문이 대등 접속일 때 영어로는 등위접속사 [V1+'and/or'+V2]구문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순차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에 대해 살펴보자.

### 3.2.3 순차 접속

9) 한국어 ‘고’가 ‘선택’ 의미로 분류되고 있음은 박용한(2000)의 의미구조 표(p.41)를 참고하길 바란다.

순차 접속은 [V1+고+V2]구문에서 V1의 행위가 완료된 뒤에 V2가 나타나는 형태로 ‘V1 그리고 나서 V2’ 의 의미를 지닌다. 영어로 번역된 문장은 총 30개가 추출되었고, 다섯 가지의 번역구문이 나왔다. 아래의 표에서 각 번역 구문별 빈도를 살펴보자.

〈표 4〉 순차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별 빈도

영어 번역 구문	개수(%)
[V+ 등위 접속사]	13(43.3%)
[V+ 종속 접속사]	6(20.0%)
[V+ 전치사]	2(6.7%)
[V+ 부사]	2(6.7%)
[V+ ∅]	7(23.3%)
계	30(100%)

위의 표를 보면 ‘고’ 순차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은 모두 5가지이다. [V+등위 접속사]구문이 13개(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V+종속 접속사]구문이 6개(20.0%), [V+전치사]구문이 2개(6.7%), [V+부사]구문이 2개(6.7%), [V+∅]구문이 7개(23.3%)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위의 표에 나타난 순서대로 번역구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3.2.3.1 [V1+등위접속사+V2]

한국어 [V1+고+V2]구문이 순차 접속일 때 V1과 V2가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되어 두 동작의 시간차를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예를 보

자.

- (41) a. 출국 날짜를 [일러주고] [가셨습니다]. <신경숙 1993: 20>  
b. "You [gave] me the departure date [and] [left]."  
<Tennant (역) 1998: 7>

(41)에서 [V1+'and'+V2]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국날짜를 일러준 후에 가셨다’ 라는 의미가 된다. 등위접속사 'and'가 V1에 해당하는[일러주다] 뒤에 V2의 [가다]를 시간 순서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고’ 접속이 순차접속일 때 동사가 종속접속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3.2 [V+종속접속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순차 접속일 때 V1과 V2가 종속 접속사 'after'와 'before'에 의해 연결되어 두 동사의 시간차를 표현한다. 먼저 아래의 [V+종속접속사 'after']의 예문을 보자.

- (42) a. 아버지는 그 여자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손크림을 발라주셨지요. <신경숙 1993: 38>  
b. When she [came in] [after] finishing the washing-up from supper, he used to put cream on her hands.  
<Tennant (역) 1998: 18>

(42)에서 [V+종속접속사 'after']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

내고 있으며 ‘설거지를 마친 후에 들어오다’ 라는 의미가 된다. 종속접속사 'after'절이 V1의 [설거지를 마치다] 뒤에 V2의 [들어오다]를 시간 순서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V+종속접속사 'before']구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43) a. 무얼 하는지 젊은 녀석 둘을 달고 와 중앙통을 돈으로 [휩쓸고]  
[간] 모양이야. <김원일 1990: 347>

b. Whatever it is he's doing, seemingly he came down with two young fellows and literally [swept] the main street with money [before] he left. <Pickering (역) 1997: 116>

(43)에서 [V+종속접속사 'before']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다. V2 이전에 V1이 일어나는 경우로 ‘가기 전에 휩쓸다’ 라는 의미가 된다. 'before' 접속사 절이 V1의 [휩쓸다] 뒤에 V2의 [가다]를 시간 순서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고’ 접속이 순차접속일 때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3.3 [V+전치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순차 접속일 때 V1과 V2가 [V+전치사]구문으로 번역되어 두 동사의 시간차를 표현한다. 영어자료에서 추출된 구문은 동사가 전치사 'after'와 'from'이 같이 쓰인 경우이다. 먼저 아래에서 [V+전치사 'after']구문의 예를 보자.

(44) a. 어렵게 [견뎌내고] [찾아온] 이 밤... <신경숙 1993: 37>

b. This night has [come] [after a hard day's endurance].

<Tennant (역) 1998: 18>

(44)에서 [V+전치사 'after']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어 ‘견뎠 후에 찾아오다’ 라는 의미가 된다. 영어로는 V2의 [찾아오다]가 [come]으로, V1의 [견뎠다]가 'after' 전치사구로 표현되어 시간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V+전치사 'from']구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45) a. 땅거미가 낄 때쯤 [일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와 함께...

<김원일 1990: 376>

b. It was Hyon-gu who went out at dusk and waited for Mother to [come home] [from work]. <Pickering (역) 1997: 8>

(45)에서 [V+전치사 'from']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어 ‘일 마친 후에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된다. V1의 [일 마친다]는 'from' 전치사구로, V2의 [돌아오다]는 [come]으로 표현되어 시간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고’ 접속이 순차 접속일 때 동사가 부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3.4 [V+부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순차 접속일 때 V1과 V2가 [V+부사]의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영어 자료에서는 [V+부사 'behind']구문의 문장이 추출되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6) a. 그 밑에는 누군가가 쓰다가 [버리고] [간] 철제 의자까지 놓여 있었다. <윤후명 1995: 22>  
 b. ...a used iron chair that someone had [left] [behind]. <Shaffer (역) 1997: 2>

- (47) a. 당신이 [두고] [가는] 것에 비하면... <신경숙 1993: 27>  
 b. Compared to what you [were leaving] [behind], I thought, mine...was nothing. <Tennant (역) 1998: 12>

위의 두 예문에서 [V+부사 'behind']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다. (46)에서 V1의 [버리다]와 V2의 [가다]는 ‘버린 후에 가다’ 라는 의미가 된다. V1은 [behind]로, V2는 [left]로 표현되었다. (47)에서 V1의 [두다]와 V2의 [가다]는 ‘둔 후에 가다’ 라는 의미가 된다. V1의 [두다]는 [behind]로, V2의 [가다]는 [was leaving]으로 표현되어 시간 순서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고’ 순차 접속에서 V1과 V2 중에서 동사 한 개가 생략되어 번역된 경우이다.

### 3.2.3.5 [V+∅]

순차 접속에서 한국어 [V1+고+V2]구문에서 동사 1개가 생략되어 영어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여기서 ‘고’ 순차 접속에서는 한국어의 V1은 영어의 V1로, 한국어의 V2가 영어로는 생략된 [V1+∅]구문이 나타났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8) a. 마침 주유소가 있는 걸 [보고] [들렀기에] 망정이지 우리는 하마

터면 꼼짝도 못할 뻔한 것이었다. <윤후명 1995: 49>

- b. We felt fortunate to [have spotted] the service station before it was too late. <Shaffer (역) 1997: 20>

(48)에서 [V1+∅]구문이 V1과 V2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다. 즉, V1, V2가 ‘본 후에 들르다’ 라는 뜻이 된다. V1의 [보다]가 [have spotted]로 쓰였고, V2의 [들르다]는 생략(∅)되었다. 이 문장은 동사 V1 즉, 먼저 일어난 일에 초점을 둔 것으로 ‘마침 주유소가 있는 길 보았으니 망정이지’ 로 의미 전달이 되는 것이다. ‘동사의 초점을 V2에 두고 본다면 ‘주유소가 있는 길 [∅+들렀다]’ 가 되어 의미상 비문이 된다. 즉, V1에 초점을 두고 V1만 영어로 나타났고, V2는 생략되어 영어로 나타나지 않는 [V1+∅]구문으로 표현되었다.

위의 3.2.3에서는 한국어 [V1+고+V2]구문이 순차 접속일 때 영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영어로 번역된 구문은 총 5가지로 [V+등위접속사], [V+종속접속사], [V+전치사], [V+부사], [V+∅]의 구문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동태 접속의 번역 구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4 동태 접속

동태 접속은 [V1+고+V2]구문에서 V1, V2가 동시동작, 또는 행위의 방법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순차 접속에서는 V2가 V1보다 뒤의 사건을 나타낸다면, 동태 접속에서는 V1, V2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면서/한 상태로/한 채’ 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 자료에서 총 73개의 문장이 추출

되었고, 영어로 번역된 구문은 모두 6가지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에서 각 번역 구문별 빈도를 살펴보자.

〈표 5〉 동태 접속의 영어 번역 구문별 빈도

영어 번역 구문	개수(%)
[V+ 등위접속사]	8(10.9%)
[V+ 종속접속사]	3(4.1%)
[V+ 전치사]	28(38.4%)
[V+ 부사]	3(4.1%)
[V+ ∅]	22(30.1%)
[V1-ing + V2]	9(12.3%)
계	73(100%)

위의 표를 보면 ‘-고’ 동태 접속이 영어로 번역될 때 [V+등위접속사] 구문이 8개(10.9%), [V+종속접속사]구문이 3개(4.1%), [V+전치사]구문이 28개(38.4%), [V+부사]구문이 3개(4.1%), [V+∅]구문이 22개(30.1%), [V1-ing+V2]구문이 9개(12.3%)로 나타났다. 위에 나타난 영어 번역 구문 중에서 [V+전치사]구문과 [V+∅]구문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 나타난 순서대로 영어번역의 형태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동태 접속일 때 동사가 등위 접속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4.1 [V+등위접속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일 때 영어로는 [V+등위접속사]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예문을 살펴보자.

- (49) a. 소년은 멀리 동쪽을 [향하고] [섰습니다]. <윤후명 1995: 27>  
b. The boy [turned] his head to the east [and] [stood].  
<Shaffer (역) 1997: 5>

(49)에서 등위 접속사 'and' 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향하다]와 V2의 [서다]는 ‘...향한 채로/향한 상태로 서다’의 의미가 된다. 등위접속사 'and'이 V1, V2를 서로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동태 접속에서 동사가 종속 접속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4.2 [V+종속접속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일 때 영어로는 [V+종속접속사]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50) a. 메추라기는 잠시 어리둥절한 품을 취하더니 다시 포르르 허공에 금을 [긏고] [날아갔습니다]. <신경숙 1993: 14>  
b. After posing in an attitude of bafflement for a few moments it took wing, again with a flutter, and [drew] a line in the air] [as] it disappeared. <Tennant (역) 1998: 3>

(50)에서 종속 접속사 'as'가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

다. V1의 [긋다]와 V2의 [날아가다]가 ‘금을 그으면서 날아가다’ 라는 뜻이 된다. 접속사 'as'가 V1, V2를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동태 접속에서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4.3 [V+전치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일 때 영어로는 [V+전치사]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영어 자료에서 다양한 전치사가 동사와 함께 쓰였다. 그 중에서 번역된 문장에 자주 나타난 전치사 'on', 'through', 'with', 'without'이 쓰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다음의 전치사 'on'이 쓰인 번역 예문을 살펴보자.

- (51) a.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갔다]. <윤후명 1995: 50>  
 b. Many people [passed] [on] horseback. <Shaffer (역) 1997: 21>

(51)에서 [V+전치사 'on']구문이 V1과 V2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타다]와 V2의 [지나가다]가 ‘탄 채로/탄 상태로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타다]는 [on]으로, [지나가다]는 [pass]로 표현되었다. [V+전치사 'on']구문이 V1, V2를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 다음은 전치사 'through'의 번역 예문을 살펴보자.

- (52) a. 그걸 볼 때마다 쓰라림이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지만],....  
 <신경숙 1993: 38>  
 b. Each time my eyes caught it a pain [darted] [through]

my heart but .... <Tennant (역) 1998: 19>

(52)에서 [V+전치사 'through']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뚫다]와 V2의 [지나가다]가 ‘뚫으면서/뚫은 상태에서 지나가다’ 라는 동시동작, 행위의 방법을 가리킨다. [훑다]는 [through]로, [지나가다]는 [dart]로 표현되었다. [V+전치사 'through']구문이 V1, V2를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 다음은 전치사 'with'가 쓰인 번역 예문을 살펴보자.

- (53) a. 애들은 그건거 [가지고] [노는게] 아니야. <이문열 1987: 3>  
b. Children shouldn't [play] [with] things like that.  
<O'Rourke (역) 1995: 39>

(53)에서 [V+전치사 'with']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가지다]와 V2의 [놀다]는 ‘가진 상태에서 놀다’ 라는 뜻이 된다. [가지다]는 'with' 전치사구로, V2의 [놀다]는 [play]로 나타났다. [V+전치사 'with']구문이 V1, V2를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전치사 'without'가 쓰인 번역 예문을 살펴보자.

- (54) a. 집에서도 [암말 앓고] [줄 거야]. <이문열 1987: 328>  
b. Your folks will [give] them [without] any fuss. <O'Rourke (역) 1995: 82>

(54)에서 [V+전치사 'without']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암말 앓다]와 V2의 [주다]는 ‘암말 하지 않은 상태에

서 주다’ 라는 동시동작의 뜻이 된다. [암말 앓다]는 'without' 전치사구로, [주다]는 [give]로 표현되었다. [V+전치사 'without']구문이 V1, V2를 동일한 시간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다음은 동태 접속에서 동사가 부사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4.4 [V+부사]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일 때 영어로는 [V+부사]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55) a. 석대를 [마음 놓고] [고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문열 1987: 326>  
 b. ...when I provided the boys with that rare opportunity to [denounce] Sokdae [freely], the memory... <O'Rourke (역) 1995: 80>

(55)에서 [V+부사]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마음 놓다]와 V2의 [고발하다]는 ‘마음 놓고/마음껏 고발하다’ 라는 뜻이 된다. V1의 [마음 놓다]는 [freely]로, V2의 [고발하다]는 [denounce]로 표현되었다. [V+부사]구문이 V1과 V2를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동태 접속에서 동사가 한 개 생략되어 번역된 경우이다.

#### 3.2.4.5 [V+Ø]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일 때 영어로는 [V+Ø]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앞에서 순차 접속에서는 V2가 생략되는 [V1+Ø]구문만이 나타났으나, 동태 접속에서는 V2가 생략되는 [V1+Ø]구문과 V1가 생략되는 [V2+Ø]구문이 둘 다 나타났다. 먼저 한국어의 V1은 영어로, 한국어의 V2는 영어가 생략된 [V1+Ø] 구문의 예문을 살펴보겠다.

- (56) a. 당신을 **[알고]** **[지낸]** 지난 2년 동안... <신경숙 1993: 12>  
 b. During the two years that I **[had known]** you. <Tennant (역) 1998: 2>

(56)에서 [V1+Ø]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V1에 초점을 두고 V2는 생략되어 영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V1의 [알다]와 V2의 [지내다]는 ‘알면서 지내다’라는 동시동작의 뜻이 된다. 영어로는 동사 V1에 초점을 둔 [had known +Ø]구문으로 ‘당신을 **안** 2년 동안’이라는 뜻이 된다. 만약에 V2에 동사의 초점을 둔다면 [Ø+지내다]구문이 되고 ‘당신을 **지낸** 2년 동안...’이 되어 의미상 비문이 된다. 또 다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57) a. 그리고 다른 절반은 내가 그의 한 팔처럼 되었기 때문에 속을 **[터놓고]** **[지낸]** 친구들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문열 1987: 338>  
 b. I couldn't make the kind of friends to whom you can **[unburden]** yourself. <O'Rourke (역) 1995: 99>

(57)에서 [V1+Ø]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동사 V1에 초점을 두고 V2는 생략되어 영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V1의 [터놓다]와 V2의 [알다]는 ‘터놓으면서 지내다’ 라는 동시동작의 뜻을 지닌다. 영어로는 동사 V1에 초점을 둔 [unburden + Ø]구문으로 ‘속을 **터놓을** 친구들...’ 라는 뜻이 된다. 만약에 V2에 동사의 초점을 둔다면 [Ø+지내다]구문이 되어 ‘내가 그의 한 팔처럼 되었기 때문에 **지낼** 친구들...’ 이라는 뜻이 되어 의미상 비문이 된다. 다음은 한국어의 V2은 영어로, 한국어의 V1는 영어가 생략된 [V2+Ø]구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58) a. 아버지 곁에 영덩이를 **[붙이고]** **[앉았으나]**... <신경숙 1993: 20>

b. I **[sat]** beside him prepared to take anything he might say but he did not speak. <Tennant (역) 1998: 7>

(58)에서 [V2+Ø]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영덩이를 붙이다]와 V2의 [앉다]는 ‘영덩이를 붙인 상태로 앉다’ 의 뜻이 된다. V1은 영어가 생략되었고, V2는 [sat]으로 나타났다. V2에 초점을 둔 [sat+Ø]구문으로 ‘아버지 곁에 **앉았으나**’ 라는 의미가 된다. 만약에 V1에 초점을 두면 ‘아버지 곁에 영덩이를 **붙였으나**’ 라는 뜻이 되어 의미상 비문이 된다. 다음의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59) a. 큰 오빠가 윗목에 **[버티고]**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숙 1993: 17>

b. It was because our big brother who **[sat]** at the top end of the room with glaring eyes. <Tennant (역) 1998: 5>

(59)에서 [V2+∅]구조가 V1과 V2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버티다]와 V2의 [앉다]는 ‘윗목에 버틴 채로 앉다’의 뜻이 된다. V1은 영어가 생략되었고, V2는 [sat]으로 나타났다. V2에 초점을 둔 [sat+∅]구문으로 ‘큰 오빠가 윗목에 앉았으나’라는 의미가 된다. 만약에 V1에 초점을 두면 ‘큰 오빠가 윗목에 버티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뜻이 되어 의미상 비문이 된다.

위와 같이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접속일 때 영어가 [V1+∅], [V2+∅]구조로 번역된 예들을 살펴보았다. V1과 V2가 동시동작을 나타내지만 이 두 동작 중에 의미적 초점이 있는 동작만이 강조되어 영어의 동사로 나타났고, 문맥상 초점 밖에 있는 동작은 생략되어 표현되었다. 다음은 동태 접속에서 동사와 현재분사가 함께 쓰여 번역된 경우이다.

#### 3.2.4.6 [V1-ing V2]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일 때 영어로는 [V1-ing V2]구문으로 표현되었다. 영어로 V1은 현재분사로, V2는 동사로 번역되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60) a. 그리하여 무슨 전능한 거인처럼 우리를 [내려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이문열 1987: 333>
- b. He [was standing] there [looking down at] us like some omniscient giant. <O'Rourke (역) 1995: 92>

(60)에서 [V1-ing V2]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내려보다]와 V2의 [서있다]는 ‘내려보면서/내려보는 상태에

서 서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 [내려보다]가 [looking down]으로, [서 있다]는 [was standing]으로 표현되었다. [V1-ing V2]구문이 V1과 V2가 동일한 시간관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또 다른 예문을 보자.

- (61) a. 제 배 부른 자들이 나누어 먹자며 백기 [들고] [나서겠어]?  
<김원일 1990: 392>
- b. Do they expect the fat cats to [come out] [waving] a white flag? <Pickering (역) 1997: 19>

(61)에서 [V1-ing V2]구문이 V1과 V2 사이의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V1의 [들다]와 V2의 [나서다]는 ‘백기를 든 채로/들면서 나서다’ 라는 의미가 된다. [들다]가 [waving]으로, [나서다]는 [come out]으로 표현되었다. [V1-ing V2]구조가 V1과 V2를 동일한 시간 관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3.2.4에서는 한국어 [V1+고+V2]구문이 동태 접속인 경우이다. V1과 V2가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V1 ~한 채/하면서/한 상태에서/V2’ 라는 의미를 가진다. 영어 자료에서 추출된 총 73개 문장이 영어로 번역될 때 여섯 가지 형태로 [V+등위접속사], [V+종속접속사], [V+전치사], [V+부사], [V+∅], [V1-ing+V2]구문으로 번역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제 4장 결론

한국어와 영어의 접속사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접속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어 [V1+고+V2]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기술하였다.

먼저 서정수(1994)에서 ‘고’ 접속의 분류를 살펴보고, 한국어 자료에서 [V1+고+V2]구문을 가진 문장을 추출해서 네 가지 접속 유형(보조접속, 대등접속, 순차접속, 동태접속)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총 330개 문장을 연구대상으로 각 유형별로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영어 번역본과 대응해서 나타난 우리말 본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보조접속(65.1%)은 보조동사와 ‘고’의 접속으로 ‘-고 있다(79.1%)/-고 싶다(12.1%)/-고 나다(5.1%)/-고 말다(3.7%)’ 네 가지가 나타났다. ‘-고 있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51.8%)와 현재분사로 번역된 경우(48.2%)로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 싶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11.5%), 명사로 번역된 경우(11.5%),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76.9%)로 동사로 번역된 경우가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고 나다’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형태가 나타났지만 특성상 종속접속사와 함께 쓰였다. ‘-고 말다’는 'end up -ing' 구문(25.0%)과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75.0%)로 번역되어 영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이로써 [V1+고+V2]구문에서 보조동사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두 동사의 상태나 반복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접속(3.6%)은 V+등위 접속사 구문으로만 나타났고 등위접속사 'and'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두 동사의 앞, 뒤 시간차를 보여주는 순차접속(9.1%)은 다섯 가지 형태로 V+등위접속사(43.3%), V+종속접속사(20.0%), V+전치사(6.7%), V+부사(6.7%), V+∅(23.3%)로 나타났다. 두 동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서 동시동작이나 행위의 방법을 보여주는 동태접속(22.1%)은 모두 여섯 가지 형태로 V+등위접속사(10.9%), V+종속접속사(4.1%), V+전치사(38.4%), V+부사(4.1%), V+∅(30.1%), V1-ing+V2(12.3%)구문이 나타났다. [V1+고+V2]구문에서 V1과 V2가 연결될 때 뚜렷한 시간관계를 보이는 순차접속과 동태접속에서 다양한 영어 번역 구문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시사점은 ‘고’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거나 결합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접속유형으로 의미를 가지고 하위분류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V1+고+V2]구문은 등위접속사 ‘and’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말 ‘고’는 형태 그 자체의 제약보다는 주변에 존재하는 문맥관계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고’ 접속구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한영사전에서 제시된 등위접속사 'and'만을 취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전 출판사는 ‘고’의 영어 대응 표현을 다양하게 수록하는 점도 다루어져야 하겠다.

이로써 유형별로 분류된 한국어 ‘고’ 접속에 대한 영어 대응 표현의 쓰임 목록이 완성된다면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해 한국어와 영어가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영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영어 번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영태. 1999. 보조용언과 서술 전개 단계. 「대구 어문론총」 15, 37-58.  
\_\_\_\_\_. 2000. 보조용언의 양태 의미. 「우리말글」 16, 1-16.
- 김은일. 2002. 기능문법과 영어교육. 「현대 문법 연구」 27, 105-121.
- 김진석. 2005. 영어 담화에서의 등위접속 요소 간 의미 해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1), 81-96.
- 남기심. 1978. 국어연결어미의 활용론적 기능. 「연세논총」 14, 1-21.
- 류영두. 1997. 영어의 접속사 연구. 「어문학연구」 6, 169-193.
- 박용한. 2000. 국어 접속어미 ‘-고’ 의미 구조 「연세어문학」 32, 27-44.
- 박찬규. 2004. 영어 등위구조의 중의성 연구. 「영어어문교육」 9(2), 173-192.
- 박한기. 1998. 종속접속 어미 ‘-고’ 의 통사 의미 자질. 「여수대학교 논문집」 12(1), 1-23.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 깊은 나무.
- 손세모돌. 1992. 국어보조동사의 특성. 「한양어문연구」 10, 5-41.
- 이상택. 1984. 국어 ‘보조용언’ 에 관한 연구. 「경대논문집」 39, 195-208.
- 「옛센스 한영사전」. 2009. 서울: 민중서림.
- Celce-Murcia, M. and D. 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Summers, D. 1995. *Longman Dictionary Contemporary English*. England: Longman.

## 분석자료 목록

- 김원일. 1990. '마음의 감옥' . 한국 3대 문학상 수상소설집 6: 365-420.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Julie Pickering 역. 1997. 'Prisons of the Heart'. *Korean Literature Today* 2(3): 45-94. Retrieved October 12, 2003, from <http://www.sogang.ac.kr/~anthony/klt/97wint/kimwonil.htm>)
- 신경숙. 1993. '풍금이 있던 자리' . 풍금이 있던 자리: 11-43. 서울: 문학과 지성사 (Agnita M. Tennant 역. 1998. 'Where the Harmonium Was'. *Korean Literature Today* 3(4): 126-149. Retrieved October 12, 2003, from <http://www.sogang.ac.kr/~anthony/klt/97wint/shimkyongsuk.htm>)
- 윤후명. 1995. '하얀배' , 1995 이상 문학상 수상작품집 19: 19-64. 서울: 문학과 지성사. (David E. Shaffer 역. 1997. 'White Ship'. *Korean Literature Today* 2(3): 99-138. Retrieved October 12, 2003, from <http://www.sogang.ac.kr/~anthony/klt/97fall/yunhumyoung.htm>)
- 이문열. 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1987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1: 19-86. 서울: 문학사상사. (Kevin O'Rourke 역. 1995. 'Our Twisted Hero'. 서울: 민음사)



